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에 홍준표 선출

최고위원에 이철우·류여해·김태흠·이재만·이재영 당선 기존 '체육관' 전당대회 벗어나 감사캐기 봉사활동 변화 시도

3일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에 대선 후보를 지낸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선출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갖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선거인단과 여론 조사를 합산한 전체 득표수에서 5만 1891표(선거인단 4만94·여론조사 1만1697)를 얻어 2위 원유철 1만 8125표(1만1021·7103), 3위 신상진 8914표(4036·4877)에 비해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경기 남양주시 시우리의 감사실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이원 생중계로 당선 결과를 들은 홍 대표는 "당대표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해방 이후 이 땅을 건국하고 산업화 그리고 문명정부를 세운



3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마을에서 자유한국당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홍준표(왼쪽 네번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영 청년 최고위원, 김태흠, 이철우 최고위원, 홍 대표, 류여해, 이재만 최고위원

이 당이 이렇게 몰락한 건 우리들의 자만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을 쇠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위원에는 이철우 후

보가 3만2787표(2만3182·9605)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두 번째로는 류여해 후보가 2만4323표(1만7359·6964)를 얻어 여성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그 뒤로 김태흠 후보 2만4277표(1만7894·6382), 이재만 후보 2만167표(1만3407·6759)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이재영 후보가 5945표(5155·789)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전체 선거인단 21만8972명 중 총 5만5272명이 투표해 25.2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 유효 투표 수는 25만145표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전당대회를 기존 '체육관' 대회에서 벗어나 지도부 후보자들이 감사캐기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다.

형식을 바꾸며 절감한 비용 및 봉사활동 수익금 3억원에 대해서는 사랑의 열매 대학생 장학금 3000만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3000만원,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 3000만원 등 순차적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서울=김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집견실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北, 평창올림픽 참여시 세계평화기여”

文대통령,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 북한 참가방안 검토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한다면 올림픽 정신 고취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과 세계평화 인류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백악실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며 “물론 북한의 참여는 IOC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개막식 기념사에서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의 영광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다시 보고 싶다”며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해 달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과 바흐 위원장과 의 단독 면담은 오전 9시30분부터 30분간 청와대 분관 백악실에서 진행됐으며, 이후 IOC위원단과의 확대 접견은 10시30분까지 이뤄졌다.

단독 면담에서 이뤄진 문 대통령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방안 검토 제안에 대해 바흐 위원장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사제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바흐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IOC와 1998년 북한의 시드니올림픽 참가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당시 김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하면 나는 무엇이든 동의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 한 말씀을 갖고 북한을 설득해 북한의 시드니올림픽 참가와 남북한 선수단 동시입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바흐 위원장은 이어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이것

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과거 시드니올림픽 참가 사례 언급을 통해 예들러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IOC위원장과의 계속된 확대 접견에서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바흐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에서의 북한 선수단 참가를 IOC 차원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한 것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준비가 잘 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히 불만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그 자체로도 대외적인 불협과 성공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의 국제 스포츠 기여 정도를 감안해 현재 2명으로 한정돼 있는 IOC 선수위원의 숫자를 3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어떻겠는가”라고 바흐 위원장에게 물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전 세계에서 총 115명으로 구성된 IOC 위원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임원 ▲국제연맹(IF) 임원 ▲개인 자격 ▲선수위원 등 4가지 분야 위원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탁구영웅’ 유승민이 지난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통해 선수위원으로 당선됐다. 이견회 삼성그룹 회장은 1996년 애틀랜타 IOC 총회 때 개인 자격의 IOC 위원에 선출됐다.

이견회 회장은 경우 외병 중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한 나라의 IOC 위원은 2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IOC 규정에 묶여 추가 선출이 어렵다.

정우택 “대표-원대, 단결·화합·조화이루길 기대”

“격에 맞는 움직임 필요...체질개선 발동 걸어야”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선출된 홍준표 신임 당대표에게 “원내대표와 당대표간 단결·화합·조화를 잘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

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대표가 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이라고 믿고 저는 원내대표로서 원내에 소위 대외관계에서 제 역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75일간의 비대위원회가

막을 내리고 새 지도부가 탄생했다”며 “제 개인적인뿐 아니라 우리 당 원들과 국민들도 새로운 기대감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많은 도움과 성원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저는 홍 대표가 당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믿고 아까 제가 강조한 소위 혁신과 단결의

두 것발을 들고 같이 저는 원내대표로 홍 대표는 당대표로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이걸 내려놓으니 섭섭함도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김윤호 기자

국방부 “軍 능력 가속화해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할 것”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합리적 수준서 책정될 것”

국방부는 3일 한미 정상이 한국 군으로의 조속한 전작권통제권 전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우리 군의 능력을 가속화해서 조기에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 지난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 등을 조건으로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한 합의에 대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핵심적인 능력과 북핵 핵·미사일 대비 초기 필수대응능력 등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노력

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SCM에서 합의한 전환 조건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매년 평가를 해서 SCM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한 평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채택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 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

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2014년 10월 SCM 합의의 조건을 유지하며 조속히 충족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전환 시기를 앞당기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이 한미국축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 인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의 재정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선을 긋고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 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